영제실 시나리오

가제 : 익숙함의 소중함

타이틀로 쓸 가로등 하나 서있는 거리 아래 장면.

2015102829배소현

**소정**: 은 대학교4학년. 소정의 책상에는 목표 : 00기업 가기! 라고 붙어있다. 달력에는 면접이나 자소서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있다. 그리고 토익책이 펴져있고, 켜져 있는 노트북에는 보다만 인터넷강의가 틀어져있다.

# scene 1

소정의 방안. 땅바닥에는 옷이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고, 책상 역시 여러 물건들이 올려져 있어서 지저분해 보인다. 침대에 이불도 정돈되지 않은 상태. 거울에 비친 소정은 화장을 하고 있다. (눈썹을 그리거나, 마스카라를 하거나, 립스틱을 바르거나 자유) 휴대폰에 전화가 울린다. 발신자는 원우♥. 발신자를 확인한 소정은 약간 일그러진 표정으로 전화를 받는다.

소정 (받자마자 원우의 말을 듣기도 전에)어어~ 금방 나갈게(약간 짜증나는 톤으로)

원우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끊은 소정. 소정이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비춘다. 핸드폰 시간은 12시 30분을 넘어가고 있고, 밑에 알림 창에는 “원우랑 약속 12시”라는 알림이 띄워져 있다.

소정 (외투를 걸치면서) 아 진짜 피곤한데… 나가기 싫다…. (라고 하며 신발을 구겨 신고, 문 밖으로 나간다)

# scene2

소정의 집 건물 앞 거리에서 소정을 기다리고 있는 원우. 소정을 본 원우는 손을 흔들고, 소정은 프레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소정은 원우를 향해 걸어간다.

소정 많이 기다렸어?(무심)

원우 아니야~ 오늘 뭐할까?

소정 (별 관심 없는 표정으로) 글쎄, 그냥 밥이나 먹자.

# scene3

음식점에 마주앉은 소정과 원우. 점원이 음식을 가져다 준다. 소정은 휴대폰을 꺼내서 음식사진을 한 장 찍는다. 찍는 소리 찰칵

그리고 원우를 쳐다보면서 딱 한마디 건넨다.

소정 (건조한 목소리, 무미건조한 목소리)너 먼저 먹어.

그리고 소정은 핸드폰으로 페북/인스타에 모습을 올리는 듯 보인다. 원우의 시점에서 소정은 원우를 쳐다보지 않고, 건조한 표정으로 핸드폰만 확인하면서 흥미 없이 음식을 집어먹는 모습을 컷. 혹은 핸드폰을 켜서 페이스북만 확인하는 모습.

 원우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어?

 소정 (핸드폰을 멈추고 원우를 쳐다보면서) 어 ? 어 뭐… 항상 똑같지 뭐..

 원우 걱정하지마. 다 잘 될거야~

소정 너는 이미 회사 다니니깐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나 이거만 먹고 토익 공부해야 되니깐 빨리 먹고 가자. (짜증 섞인 톤으로)

그리고 다시 원우는 쳐다보지도 않고, 음식만 깨작깨작 먹는 소정,

# scene 4

다시 소정의 건물 앞. 소정과 원우가 나란히 서 있는 상태.

소정 나 이제 들어간다.

미련 없이 뒤를 돌아서 건물을 향해서 가는 데, 소정이 몇 발자국 떼기 전에 원우가 소정의 손을 붙잡고 뒤 돌게 한다.

원우 (애교스런 말투로) 나 이제 회사 다녀서 주말밖에 못 만나는데, 이렇게 헤어지는 거야? 아쉬운데 편의점에서 맥주나 한 잔 할까?

소정 아니야. 이제 그만 갈래. 나 피곤해. 공부도 해야 되고.

원우 알겠어. 그럼 안아주고가

소정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 ,,, ,라고 말하고 둘은 껴안는다.

건물으로 들어가면서 컷 한다

# scene 5

다시 소정의 방안. 소정은 잘 준비를 마치고 베개를 배고 이불을 덮고 있다.

소정의 목소리가 내레이션으로 들린다. : 아 오늘도 피곤한 하루였다. 나는 원우를 왜 만나는 걸까? 만나도 행복하지 않은데……(고민에 잠긴 표정)

그 때 마침 울리는 카톡 소리. 그리고 이불에서 손을 꺼낸 소정은 핸드폰을 확인한다. 핸드폰에는 원우로부터 두 개의 카톡이 도착해있다. “소정아 오늘도 얼굴 보여줘서 고마워.” “집에 혼자 있어도 밥 잘 챙겨먹고” “아니면, 내일도 회사 끝나고 집 앞에서 볼까?”. 라고 떠있다.

소정 (카톡을 보고 뭔가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는 소정. 그리고 소정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는다.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 내레이션: 그래 이렇게 피곤하면 안 만나면 되잖아. 취업준비나 열심히 하자, 김소정)

그리고 소정의 손 클로즈업. 원우에게 “아니야, 올 필요 없어. 각자 일에 집중하자” ,”헤어지자.”라고 카톡을 보낸 소정. 그리고 원우를 차단한다. 그리고 카톡창도 나가는 소정. 하지만 원우에게 곧바로 전화가 온다. 전화를 받지 않은 소정. 소리에 뒤척이다가 폰을 확인한다. 부재중 전화 원우(15). 폰을 다시 뒤집고 이불을 뒤짚어 쓰고 잠에 청하는 소정.

# scene 6

(다음날 아침)

소정 (이불을 걷히면서 일어난다. 머리도 벅벅 긁고,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한다. 이미 오후 중천 기지개를 펴면서) 하암, 아 오랜만에 푹 잤네.

공부를 하려는 듯, 책상에 앉은 소정. 토익 공부를 하는 듯이, 인강을 듣고 있다. 갑자기 인강 강사의 얼굴이 바뀌면서 원우가 강의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소정 뭐야 이게! 집에 있으니깐 집중이 안되!...나가서 산책이나 하고 와야겠다.. .

# scene 7

건물에서 나와서 문 앞에 선 소정. 문 밖으로 나서다가 자신의 풀린 운동화 끈을 밟고 넘어진다.

소정 아야!

소정 풀린 신발끈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소정 내레 원우가 없으니깐, 신발끈 묶어줄 사람도 없네.. .

라고 생각하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소정 내레 아냐, 이제 나 혼자 해야지 라고 말하며 신발끈을 묶고 일어난다.

# scene 8

다시 걷고 있는 소정은 우연히 음식점 안을 쳐다보는데, 한 커플이 화기애애하게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이 보인다. 순간 그 모습이 원우와 소정으로 오버랩 되며 회상장면이 보이는 소정.

(과거회상)

원우 (음식을 조금 떠서) 자기야, 아~

소정 (놀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서 원우를 보고) 아니야, 괜찮아.

원우 (애교 넘치는 말투로)아 그러지 말고, 빨리~~ 아~~

소정 (싱긋 웃으면서) 알겠어. 알겠어. (하고 입을 벌려서 음식을 받아 먹는다)

(현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똑똑똑 소리에 현실로 돌아온 소정. 자신도 모르게 유리창에 붙어서 헤벌레한 표정으로 모르는 남녀커플을 바라보고 있고, 남녀 커플은 황당한 표정으로 소정을 바라보고 있다.

소정 (유리창에서 손을 떼고,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난다) 어머! 죄.. 죄송합니다! (김소정! 왜 이래 정신차려! 하며 자신의 볼을 찰싹찰싹 때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다시 걷는다)

# scene 9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있는 소정. 소정은 명상을 하는 자세처럼 앉아있다.

 소정 (바나나우유를 빨면서) 소정아 명상! 그래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자

하고 눈을 감는다. 눈을 감았는데, 원우의 모습이 머리 속에 떠오른다.

소정 (눈을 확 뜨고, 자기 머리를 콩 치면서) 아 진짜! 미쳤나봐.. 제 정신 아닌가봐.. 김소정.. (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하는데, 아무 연락도 없다)정작 본인은 연락한 통 없는데,,, 그래 술 따악 한잔만 하고 들어가야겠다…!

# scene 10

밤/ 편의점 앞 테이블/검은 봉다리를 들고 나오는 소정. 편의점 앞 테이블에 주저 앉는다.

소정 (상심한 표정으로 봉투 안에 들은 소주를 까면서 잔도 없이 꿀꺽꿀꺽 들이킨다. 캬~. 어느새 병이 하나, 둘 쌓이고 세 병째 마시는 모습. 취기가 올라온 소정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자신도 모르게 폰을 켜고 원우와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헤헤 웃고 있다가 약간 정신 차린듯)씨이.. .이원우 보기 싫어 라고 말하면서 사진 삭제를 누르려고 하는 찰나에,

이 때 누군가 자신이 앉아있는 테이블 앞으로 걸어와서 앉는다. 얼굴을 보니 원우다.

소정 (꼬이는 발음으로) 너 왜 하루종일 나만 따라다녀! 너도 가짜지? 너 땜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너 싫다구우우우우우… 얼릉 가란 말이야

원우의 형상이 정말 사라진다. 그러자

소정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면서, 울먹거리면서) …어? 아니야! 원우야 가지마! 나 너 안 싫어해. 좋단 말이야. ㅠㅠㅜㅠㅜ(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운다)

이 때 뒤에서 회사를 끝나고 달려온 듯 양복을 입은 원우가 뛰어서 등장한다.

원우 (소정의 뒤에서 한걸음 떨어져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여기 있을 줄 알았다. 김소정이야 뭐 내 손바닥 안이지.

원우 (소정에게로 다가가서 토닥이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에휴, 김철딱써니씨. 여기서 이러지 말구 일단 얼른 들어가자.

-Fade out 되면서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원우와 소정의 소리만 들린다.

소정 이원우! 너 땜에 나 내일 면접도 망했어. 책임져

원우 (웃으며) 그래그래 내가 평생 책임질게 우리 소정이~ 그니깐 들어가자.